

고루피나의 작품을 평론한다. Review of the work of Rupina Go

고 루피나, 최 성옥*
충남대학교 석사, 충남대학교 교수*

Go Rupina, Choi Sung Ok*
Chungnam National Univ Master,
Chungnam National Univ Professor*

1. 작품 이미지



2. 작품 설명

작품 〈독립된 성부〉는 음악에서 이야기하는 ‘성부(멜로디 파트, 하모니 파트와 같이 선율과 화음을 이루는 개별 라인)’를 무용수에 대입하여 만든 작품이다. 각 성부, 즉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등의 선율은 어떤 악곡에서는 소프라노에 주체를 두고 있으며, 다른 성부는 이에 종속하고, 또 어떤 악곡에서는 모두가 완전히 대등한 입장에서 작곡되는 등 성부의 진행방법은 작곡상의 중요한 기법의 하나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토대로 각 선율선에 따른 청각적 소스를 무용수들의 움직임으로 풀어내며 진행되는 작품이다. 주제보다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형태의 작품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리듬을 한명의 무용수가 나타내며 이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작품을 진행한다.

3. 작품 평론

〈독립된 성부〉는 음악이 구성되는 각 성부를 3명의 무용수로 표현한다. 다른 작품과는 달리 작품에 주제가 뚜렷하지 않으며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구도의 변화가 중점이 되어 작품을 진행한다. 이 작품은 총 2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5분간 진행된다. 첫 번째 곡에서는 타악기가 하나씩 쌓이며 진행되는 구조로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또는 감정이 없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타악기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무용수들 한명 한명의 움직임이 추가되며 가로 혹은 세로로 움직이는 구도로 무용수들의 구역을 나누어 쌓이는 형태를 나타낸다. 타악기가 모두 쌓아진 음에서는 세 무용수들의 트리오로 이루어진 동작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곡에서는 첫 번째 곡과는 달리 흐르는 음악의 형태로서 정확한 동작보다는 음악의 흐름에 맞추어 무용수들의 동작이 진행된다. 이전 곡과는 다르게 부드럽

고 흘러가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작품의 진행에 반전을 준다. 이 작품에서는 두 곡의 느낌이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무용수의 각 동작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음악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